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줄도산 위기 정비 시급

전남도가 자체 시행 중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재정비가 시급하다.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속에 지원금 수령 후 폐업과 미운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사업 시행 목적인 고용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마을기업 관련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있어 전남도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운영·지원 체계 재정비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월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마을기업은 총 332개소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전남 마을기업은 유형별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이 200개

과하다. 폐업 의심 업소 11곳, 휴업·미운영 업소 30개소 등 전체 123개소 중 40%(50개소)가 폐업 및 사업 미운영 의심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에도 고용 실적은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2022년 92곳에서 2023년 107곳으로 늘었지만 전체 고용 인원은 322명에서 217명으로 105명(32.6%)이나 급감했다.

경연년에 따른 고용 악화가 심화하면서 고용원 1명 이하인 기업은 46개 사로 전체 운영 기업 중 63%에 달했다. 또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기업은 11곳 뿐이다.

게다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부적절한 관리는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점검을 통해 사업 불능, 폐업 등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 조사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 취소 건수는 2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비마을기업은 시·도가 지정하며 지정 2년 이내에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단계로 전환(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같은 2년 기한마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비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이 필수임에도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도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마을기업은 신규 지정 5천만 원, 재지정(2회차) 3천만 원, 고도화(3회차)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 신규 마을을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역시 신규 지정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2023년 69억 6천 500만 원이던 마을기업 예산은 2024년 26억 9천 500만 원, 2025년(정부 제출안 기준) 16억 7천 500만 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전체 기업 중 폐업·사업 미운영 의심 기업 40%
고용 인원 1년새 32% ‘뚝’...1명 이하 고용 63%
정부 마을기업 관련 예산 축소 속 내실 기해야

소,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123개소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일자리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는 조직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을 도입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안부형 예비마을기업(1천만 원)보다 2배 많은 2천만 원의 사업비(도 30%-시·군 70% 매칭)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체계적 관리 없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기업은 73개소에 불



광주·전남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식 향유의 장을 펼쳐온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이 3일 오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려 본사 임원진과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 성료

경제·문화·예술계 명강사 초청 16강좌...교육문화 지평 확장

광주·전남지역 경영자들과 각 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지식 향유의 장을 펼쳐온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료식이 3일 오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11기 원우를 비롯해 이장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제6대 총동장회장, 석성심 부회장과 간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1기 원우를 대상으로 공로패(5명)와 표창패(15명)가 수여됐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10년의 노하우를 갖고 지난 3월 개설한 창조클럽 아카데미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원우 여러분께 재교육과 함께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오늘 종강식이 끝이 아니라 동창회로 뽕뽕 뽕친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연 11기 원우회장은 “원우들과 만난 지 벌써 1년이 돼간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함께 강의를 듣고 여행과 운동을 즐기면서 가장 소중한 모임 중 하나가 됐다”며

“만남도 중요하지만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수료 후에도 더욱 끈끈하고 단단한 11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수료식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 원우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원우의 밤’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3월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6강좌가 이뤄진 제11기 창조클럽은 그동안 경영·경제·문화·예술 전반과 관련된 전문강사가 짜인 세 가지 주제로 지역 교육문화의 지평을 한 단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강사진은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돼 수준 높은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우들은 강연외 작은 음악회를 비롯한 친선포교대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상호 간 친교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내년 3월 중 개강을 앞둔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지역의 리더와 CEO들의 인적네트워크 강화에 목적을 두고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솔 기자

강진서도 고병원성 AI 발생...확산 우려

지난달 영암 첫 발생 일주일여만에 2번째 확진

강진군 군동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영암에 이어 일주일여 만에 전남에서 발생한 2번째 고병원성 AI로 지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AI 항원이 검출된 강진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H5N1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농장주는 전남 폐사증가를 방역기관에 신고했으며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즉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2천마리를 모두 선제적 살처분했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이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남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으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

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7건(전남 2건, 강원·충북·충남·인천·세종 각 1건) 발생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짜여진 시나리오’ 무죄 주장 6면
2024 아트뱅크...전현숙작가 14면
KING 도영, 트로피 ‘씩씩이’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